

제2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강식 개회사

사랑하는 기후환경리더 대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보람이 늘 함께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험과 추억도 많이 쌓고, 무엇보다도 학업에 있어서 괄목상대할 만한 큰 성취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2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훌륭하게 수료하신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무한한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모두 수고하셨다고, 서로 박수 한 번 크게 쳐줍시다.

오늘의 수료식에 이르기까지 ‘반기문재단’과 함께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대자연’의 이혜경 회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과학자들은 향후 10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지구환경 분야에서 기후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더욱 급격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각국의 노력 끝에 이끌어낸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임계점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으로 잡았고, 2030년에서 2052년 무렵에 이 임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1.5도 상승 도달 시점을 2021년에서 2040년 사이로 예측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부지불식간에 파국이 10여년 앞당겨졌고, 이미 1.09도가 올라서 1.5도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0.4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구 동토층의 점진적인 해빙과 함께 갑작스러운 형태의 동토층 해빙으로 탄소와 메탄가스가 급격히 배출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온실가스 세계 최대 배출국들의 배출량을 넘어서는 것으로써,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가 기후과학계에서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의 급격한 변화, 다양한 위험요인까지 고려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좀 더 앞당기고, 문제의 심각성에 걸맞는 대규모의 노력과 대담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Net Zero’를 선도할 글로벌 리더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각 국가를 위한 지도자는 있어도, 세계를 위한 지도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지만, 각 국의 지도자들은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 생긴 북극 항로와 자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음을 위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어떠한 벽도 국경도 우리를 위기에서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보우소나루 前 브라질 대통령은 재임 중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아마존 열대우림 개간과 삼림 벌채를 남용해서 우려를 자아냈었는데, 작년에 대선에서 승리한 룰라 대통령은 작년 11월, 이집트 샬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 : Conference of the Parties)에 당선인 자격으로 참가해서 “2030년까지 브라질의 산림 벌채를 순 제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자국의 리더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행동한 것입니다.

저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9년에, 2040년까지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을 완전히 폐쇄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었습니다.

당시에 산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이 제안은 오늘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요한 정책 기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제까지 추구해 온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어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연대하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 행동하도록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쏠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행동하도록 밀어붙여야 합니다. 탄소경제에 기반한 성장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기후협력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옳고 타당한 정책을 입안하도록 영향력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는 이러한 선제적이며 도전적인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고,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은 여기에 부응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양성과정 수료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터득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충분한 규모와 속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후위기 극복에 주저없이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선원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지만, 파도가 거칠어질 때 능력있는 선원의 진면목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기후환경리더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쌓아 올렸고, 이제 기후위기의 격랑 앞에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마음껏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제2기 기후환경리더 여러분들의 빛나는 활약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